

전남 양파 면적 줄고 겨울대파 늘었다

전남 양파 재배면적 4.4% 감소...생산량 124만8000t 전년비 9%↓ 겨울대파 신안 10.2%·진도 5.8% 증가...1~4월 대파 가격 하락 예상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이 4.4% 감소하면서 전국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8.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파는 재배면적이 줄면서 전국 생산량이 연평균 2.0%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 '농업 전망 2022' 행사에서 발표했다.

연구원은 행사 이틀날 열린 3부에서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대주제로 엮근채소, 식량작물, 우제류, 양념채소, 과일, 가금류, 국제곡물, 과채, 단기 임산물 등 9개 분과로 나눠 작물생산 동향과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4.4%)을 포함해 전체 4.7%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전국 재배면적은 1만7655ha로, 전년(1만8532ha)보다 4.7% 줄어들고, 2017~2021년 평균(1만9949ha)보다 11.5%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양파 생산량은 전년 137만t에서 124만8000t으로, 8.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141만t)에 비해서는 11.5% 감소한 양이다.

지난해 전남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27.9%(12만6305t) 증가한 57만9042t으로, 전국 생산량의 36.7%를 차지했다.

대파는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량이 연평균

2.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비 증가와 농가 고령화 영향으로 대파 재배면적은 오는 2031년에는 1만1000ha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1년 재배면적(1만3174ha)보다 16.5%(2174ha) 줄어들고, 30년 전인 2001년(1만3519ha)보다 18.6%(2519ha) 감소한 수치다.

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올라 향후 10년간 단수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안·진도 대파를 필두로 한 전남 생산량은 전국의 36% 비중을 차지한다.

겨울대파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재배면적이 늘면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21년산 겨울대파 출하는 전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2021년산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2986ha에서 3344ha로, 12.0% 증가했다. 평년 3192ha에 비해서는 4.8% 늘어난 면적이다.

신안의 경우 전년(1422ha)보다 10.2% 증가한 1568ha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산지인 진도 재배면적도 5.8%(1028ha→1087ha) 증가했고, 영광 24.4%(289ha→360ha), 기타 33.1%(247ha→329ha) 등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2021년산 겨울대파는 생육기 기상 호조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낮은 가격의 영향으로 출하 의향을 미루는 농가가 많을 것"이라며 "겨울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1~4월 대파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4~7월 출하되는 봄대파 재배면적은 경기 지역만 4.8% 증가하고 노지 대파가 출하되는 다른 지역은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지역은 시설 대파를 주로 출하하며 출하시기도 상대적으로 이른다.

한편 지난해 농업 생산액은 2020년보다 7.8% 증가한 54조42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생산액은 전년보다 3.2% 줄어든 52조293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재배업 생산액은 0.6% 줄어든 30조3760억원으로 관측됐다. 과실은 올해 생산성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3.7% 감소하고, 채소는 전년 생산액 증가의 기저 효과로 인해 올해 2.1% 줄어들 전망이다.

축산업 생산액 역시 도축량·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여파로 전년보다 6.6% 감소한 21조917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가 소득은 2020년보다 4.3% 증가한 4697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익직불과 수급조절 등 정책효과와 농축산물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0.6% 감소한 4671만원일 것으로 관측됐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총수입 감소와 농업경영비 증가로 6.9% 줄어들 전망이다.

농외소득은 농업임금 상승과 자본수입 확대로 3.4% 늘어나지만 이전소득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0.3% 줄어들 것으로 조사된 내다봤다.

올해 농가 인구는 22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하지만 농업인 취업자는 귀농·귀촌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파우치백'으로 태어난 폐쌀포대 케냐 돕는다



김춘진(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폐쌀포대 업사이클링 판매수익금'을 국제구호단체에 전하고 있다. <aT 제공>

aT, 판매 수익금 480만원 기부

폐쌀포대를 손가방으로 재활용해 마련한 수익금이 케냐 식량 구호활동에 쓰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폐쌀포대를 재활용해 얻은 판매 수익금 480만원을 국제구호단체 '러브씨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은 케냐 주민들에 옥수수 가루, 콩 등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공사는 우리 쌀 5만t을 해외 식량 원조하는 과정

에서 생긴 폐쌀포대를 100% 재활용하는 클라우드 펀딩(모금)을 진행했다.

폐쌀포대는 '파우치백' 300개로 다시 태어났으며, 네이버 해피빈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기 전량 판매에 성공했다.

공사는 수익금 48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김춘진 사장은 "이번 폐쌀포대를 재활용하면서 자원 가치를 높이고 폐쌀포대 소각 폐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지구촌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겨울 가뭄 지속...신안 섬 주민에 물 2만병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지역협력단이 지난 21일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 섬지역 주민들에게 비상 급수용 병물 2만병을 지원하고 있다. <영·섬유역본부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매화·병풍·수치도 저수량 급감

신안 섬지역 가뭄이 지속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병물 2만병을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지역협력단은 지난 21일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 섬지역 주민들에게 비상 급수용 병물 2만병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신안 매화도, 병풍도, 수치도 마을 상수도 수원이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급수제한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영·섬유역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추가 병물을 지원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도서나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LH 촉발 '농지 투기' 사태에 농지 보전 필요 인식 높아져

농경연 국민의식 조사...도시민 55%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있다"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 필요" 응답률 농업인 75%·도시민 72%

도시민의 55.5%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절반 가까이(46.8%)는 농지는 농지 로만 사용할 수 있게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19일~12월17일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담겼다.

조사는 전국 농업인 1044명과 도시 주민 1500명 등 총 25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5.5%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외에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17.5%, '보통'은 38.0%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5%)이나 주부(21.0%) 및 자영업(20.3%),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3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 투기 사태 영향으로 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소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농업인 75.6%, 도시민 71.8% 등으로 모두 70%를 넘겼다.

들여다보면 '최소한 현재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44.8%·도시민 49.5%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지지율이 4.7%포인트 높았다.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30.8%, 도시민 22.3%로 나왔다.

'지역균형 발전 등을 생각하면 다른 용도로 농지를 전용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업인 20.8%, 도시민 18.9%에 그쳤다.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지는 농지 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이 가장 많이 꼽혔다.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을 묻자 농업인 46.8%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되, 농지는 농지 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